

1. 진로 고민 과정 및 목표

제가 처음 ‘법’이라는 학문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사회 탐구 과목으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공부하며 법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줄곧 ‘국어 교사’만을 꿈꾸며 다른 진로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에도 그와 관련된 진로를 꿈꾸며 학과도 그와 관련된 국어국문학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에 관해 느꼈던 흥미는 단순한 사회 탐구 과목이 주는 재미,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며 저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 1학년 때 가장 먼저 수강한 ‘민법 총칙’이라는 일선 과목을 통해 다시 한번 법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흥미가 그저 단순히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며 느끼는 희열인지, 아니면 정말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통로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학창 시절 내내 꿈꿔왔던 ‘교사’라는 직업에 관한 고민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을 마치는 동안 다른 법학 교양과목을 수강함과 동시에 교사에 대한 진로를 고민하고자 대외활동으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대교단)’ 활동을 수료하며 교육기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 저는 초중등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며 ‘교육’이라는 활동의 어려움을 깨달음은 물론 ‘배움’이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가르침과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동시에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만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사란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미래의 인재들을 건강하게 양성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저는 아직 학생들을 이끌어 길을 안내하기에도 부족하지만, 배움에 있어서도 많은 부족함이 있는 제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동시에 나의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이라는 학문은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이정표의 역할로써 배움을 얻고자 하는 저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는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한 ‘지식인’으로서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2. 자기 분석

1) 자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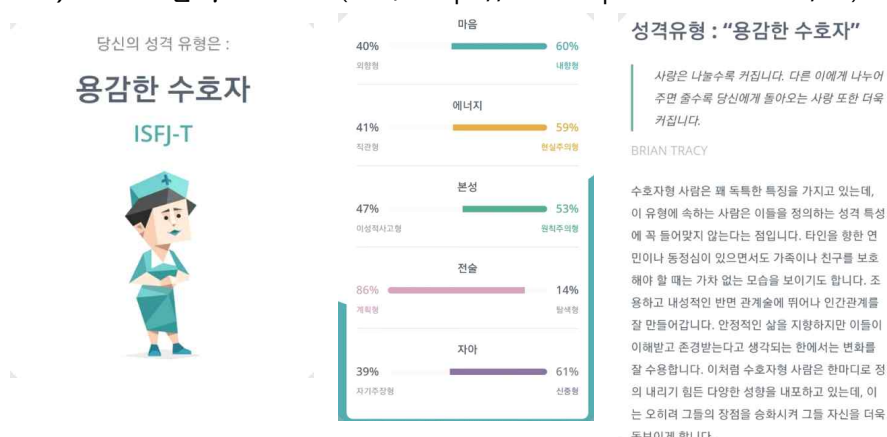
저는 평소에도 ‘젊은 꼰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고지식하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동안 학교에서는 교칙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선생님의 말씀은 귀담아들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성격은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딱딱하고 감정이 차갑다는 말을 들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사에 있어 규칙을 준수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칭찬을 들곤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며 너무 딱딱한 성격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해야 이런 저의 성격을 고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지만, 타고난 성격은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원칙주의적이지만, 동시에 몹시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도 항공권과 숙소는 3개월 전에 예약하는 것은 당연하고, 여행 동안의 일정 또한 엑셀로 작성하여 30분 단위로 결정할 정도의 계획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러한 원칙주의적인 성격과 계획적인 성격을 결합하여 저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에 임할 때, 미리 일어난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계획을 여러 방향으로 설정하여 미래에 있을 당혹스러운 사고나 우연에 있어 대비하고 그 원칙 속에서 다른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고, 저는 저의 이러한 성격과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법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은 일정하게 정해진 틀 속에서 사회의 사람들이 적정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그 시대의 틀을 맞추어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법’의 이러한 특징이 저의 성격과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듯이, 저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며 있을 다양한 타인과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을 공부함으로써 ‘나’ 자신의 충돌을 대비함은 물론 타인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2) MBTI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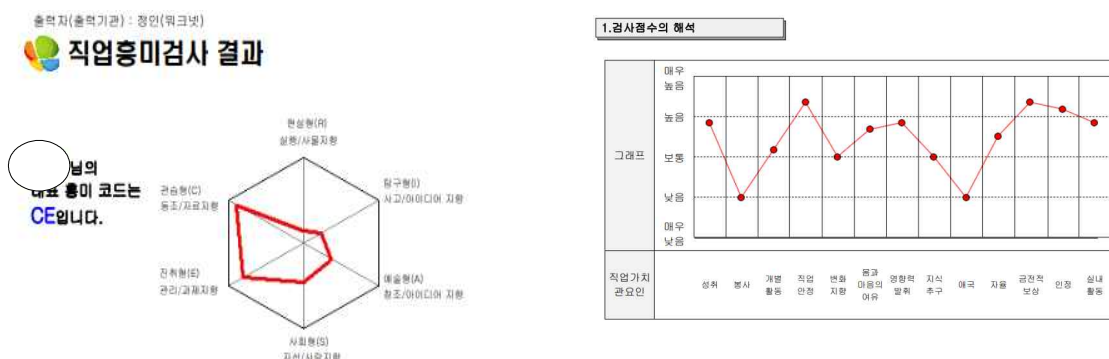
(출처: <https://www.16personalities.com/ko>)



저는 MBTI 검사 유형 중에서 ISFJ 유형으로, 용감한 수호자 성격유형입니다. 용감한 수호자형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반면 관계술에 뛰어나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나가고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지만 본인이 이해받고 존경받는 한에서는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결정하기 힘든 다양한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성향으로, 이는 오히려 그들의 장점을 승화시켜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용감한 수호자 성격 중에서도 상당히 신중한 성향을 가진 이들은 완벽주의자만큼이나 세심하고 꼼꼼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간혹 일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맡은 바 일에 책임감을 다하고 업무에 임하여 회사나 가정에서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저의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통해 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즐기기보다 함께 달성한 업적 자체에 의의를 두는 편이며, 그저 나의 일을 끝냈다는 것을 기뻐하는 성격입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은 훗날 단순히 법학을 공부함을 넘어 제가 가진 지식을 통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갖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워크넷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직업 가치관 검사

(출처: 워크넷)



먼저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저는 저의 대표 흥미코드가 'CE'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직업 흥미 유형 중 CE코드는 각각 관습형과 진취형을 의미합니다. 관습형 점수가 높은 이들은 조직적이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일을 좋아하며, 진취형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도록 이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저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좋아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규칙과 시스템이 잡혀있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흥미 유형중 CE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S(사회형)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좋아하며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을 선호하며 일반적으로 이타적이며 자애롭고 배려심이 깊은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가장 추천하는 직업은 공무원, 변리사, 세무사, 총무 및 인사 관리자, 회계사, 변호사, 판사,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는 성취, 직업 안정,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금전적 보상, 인정 등이 높은 점수를 획득한 반면, 변화 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애국, 자율 등은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성취와 직업 안정, 영향력 발휘 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들과 관련된 직업에는 대학교수, 연구원, 관리자, 감독, 검사, 판사, 법무사, 변호사, 상담원, 교사 등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3. 목표 분석

1) 목표 대학원

제가 현재 목표하고 있는 대학원은 바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차별·소외·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참여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는 로스쿨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남대 로스쿨의 교육목표를 본받아 뜻깊게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로스쿨 중에서도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 이유는 등록금이 전국 로스쿨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입학금과 등록금 외에도 금전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남대 로스쿨은 다양한 로스쿨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남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저는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남대 로스쿨은 보통 1·2학년 때는 헌법·민법·형법·소송법 등 전공필수에 관련된 대표 법학들에 관하여 공부하고, 2·3학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학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습수업과 함께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하도록 커리큘럼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로스쿨에서 3년의 기간 동안 법학을 공부하고 나면 ‘변호사 자격시험(BAR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아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가상과 교육과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법률가상 구현을 위한 교과과정 편성

필수, 기본

· 다양한 영역의 법률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목 학습

심화

· 습득한 법률 지식을 토대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학습

실습

· 이론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활용능력 배양

법률가상

· 최고의 윤리관을 가진 법률가
· 법 전문가로서 충실한 자식과 실무능력을 지닌 법률가
· 분화된 사회영역과 소통하는 국제적 수준의 법률가
· 특화된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법률가

교육과정 구성

교육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 교육목표 :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세계적 수준의 법률가 양성

전문분야 특화역지 함양 6개 전공영역(concentration) (민사·형사, 공법, 기업법, 국제관계법, 공익인권법)	국제무대 활동능력 배양 국제관계분야강화 (국제거래, 통상, 협상론, 동아시아법, 외국어 강화개설)
법적 사유능력과 실무적 자질 함양 법적사유능력 (기본법률과목 및 기초법 과목) 실무적자질 (실무 및 실습과정, 클리닉 등)	전문분야 특화역지 함양 공익인권법 특성화 (환경, 사회보장, 노사관계, 소수자, 농어민피해구제 등)

(출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2) 대학원 졸업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흔히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진로가 있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뒤 7년간 법조인으로써의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 임용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공정함’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중요히 여겨 해당 사건을 법률에 따라 양 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여 공정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동일하게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뒤 검사 임용에 도전하면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검사 임용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 이전 검찰 실무와 검찰실무 수습 과목을 수강하고 높은 성적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여 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은 변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뒤 로펌에 취직하거나 법률 사무소를 개업해서 활동하곤 합니다. 이처럼 로펌에 취직한 변호사들을 ‘사내변호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비교적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정규적인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일을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신입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진로입니다.

또한 로스쿨 졸업 후 재판 연구원(로클릭)에 지원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판 연구원은 법관의 판결을 돕고, 그들의 업무를 지원하며 수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로클릭은 로스쿨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고, 한 해에 100명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진로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 공무원, 금융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무 직렬, 군법무관, 학자, 교수 등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진로 중에서 로스쿨 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렬은 ‘검클빅’입니다. 검클빅은 각각 검사, 로클릭, 빅펌(대형로펌)을 따서 만든 줄임말로, 그만큼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렬이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과 좋은 성적을 얻어야만 가능한 진로입니다.

4. 계획 수립

1) 과거 활동 내역

(1) 수강 내역

-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부전: 경영학원론,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등의 경영과목 수업을 통해 사회 내에서의 인간관계와 관련 법률에 관해 공부함
- 민법총칙, 여성과 법률 등 다양한 법학 교양과목과 일선과목 수강: 이외에도 헌법1(기본권), 서양법제사, 민법입문, 현대인권과 법 등의 과목 수강 예정

(2) 공모전 활동

- 전남대학교 내 ‘유즈풀’이라는 공모전 동아리 활동을 통해 DCA대학생광고공모전, 링글 홍보 공모전, 제일기획 대학생 공모전 등 다양한 공모전 참가 활동 수행하며 동료들과 프로젝트 및 작품 기획을 수행하였습니다. 물론 탁월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실패에 대한 좌절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고, 동료들과의 협력심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좋은 경험으로 추억하고 있습니다.

(3) 대외활동 및 수상내역

-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 봉사단 17기 활동 (1-1, 1-2)
- 전남대학교 진로/취업 프로그램 온라인 미래설계캠프 참여 (1-2)
- 전남대학교 교내 글쓰기 공모전 성찰적 글쓰기 부분 장려상 (1-2)
- 상상이상 사이언스 창의 진로 과학교실 교사로 활동 (2-1, 2-2)
- 2021 광주 전남이 읽고 톡하다 독서클럽 리더로 활동 (2-1, 2-2)
- 독서클럽 활동 중 우수 활동 클럽으로 선정되어 장려상 수상 (2-2)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마일리지 장학금 선정 (2-1)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ON택트 진로캠프 활동 (2-1)
- 전남대학교 총장명예학생 PHS 활동중 (2-2~)
- 전남대학교 총장명예학생 활동 중 개인 종합 우수상 수상 (2-2)
- 전남대학교 총장명예학생 활동 중 팀 도전 프로젝트(대표) 우수상 수상 (2-2)
- 전남대학교 총장명예학생 활동 중 독서서평&감상문 공모전 개인 우수상 수상 (2-2)
- 전남대학교 글쓰기 상담가로 활동중 (3-1~)

(4) 봉사활동 (총 121시간)

-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 봉사단 17기 활동
- 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 ‘선물’ 학습 진로 멘토 활동
- 삼성 에스원·기아·CJ ‘청소년 온라인 진로사람책’ 활동

(5) 인문학적 성찰

저는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3학기 동안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책을 대여하여 꾸준히 독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서만 60여권에 달하는 책을 감상하였을 뿐 아니라 ‘밀리의 서재’라는 이북 구독 서비스를 통해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독서하여 인문학적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 도서관에서 광주시와 함께 주최하는 전남 광주가 읽고 톡하다 라는 활동을 통해 독서 클럽을 운영하여 동료들과 함께 독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상에 대해 토론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에서 주최하는 ‘열공’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책을 감상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진로를 위한 미래 계획

(1) 대학 생활 중 계획

-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LEET) 준비 스터디 진행
- ② KBS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 ③ 토익 900 이상 목표
- ④ 오픽 및 토익 스피킹 준비
- ⑤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준비
- 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갱신
- ⑦ 교내 법학 동아리 ‘난파 법학회’ 활동 계획
- ⑧ 법무법인 해율 대학생 홍보대사 1기 지원 계획
- ⑨ 졸업 학점 4.0 이상 달성
- ⑩ 학기 중 독서클럽 활동 4-1까지 유지

(2) 졸업 후 계획

최종적으로 졸업 후 계획은 먼저 제가 가장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 공부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법학 공부를 통해 저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향후 도전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무사히 갖추게 된다면, 바로 로클릭에 지원하여 법조인으로써의 경력을 차근차근 다지며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로클릭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일단 일반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판 혹은 사법 사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저 단순히 명예 혹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전문직 직업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을 활

용하여 많은 이들을 돕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로를 희망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꾸준한 공부와 많은 시험을 통과하는 등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5. 참고자료: 자기계발활동기록부(생략)